

울뜨레아



간사: 김광용(요한) 408-655-8595

부간사: 강석용(베드로) 408-529-2787

부간사: 노상현(미카엘라) 408-655-9111

빨랑카부: 정휘식(루시아) 408-500-2825

음악: 최상진(엘리사벳) 408-927-6641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Holy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울뜨레아

(2010년 4월 15일)

- ❖ 성체조배 (성당)
- ❖ 영적 독서:

요한 복음 10:27-3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 ❖ 묵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내 말을 알아듣는가? 또한 나의 말을 따르는가? 아니 나를 본받으려 나를 따르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 ‘알아듣다’는 곧 마음을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를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잘 읽고 있으며 그분의 마음과 일치하려 애쓰는가? 그리고 그분을 목숨 바쳐 따르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야!” 하고 사랑 그윽한 목소리로 부르시자, “라뿌니!” 하고 응답한다. 마리아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읽었다. 그리고 일생을 바쳐 주님을 따랐다.

주님께서서는 당신 양들을 알아보신다. 최후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이 당신에게 사랑을 베푼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알아보신다.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늑대의 탈을 쓴 양, 또는 염소의 탈을 쓴 양들은 결코 하늘나라 양 우리에게 들어 갈 수 없다. 간디가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존경하지 않는다” 고 말한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겠다. 무늬만 그리스도이면 무엇하겠는가? 삶은 전혀 그분을 닮지 않는다면 그는 양이 아니라 염소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의 양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영원한 생명의 목장에서 주님 사랑의 풀을 뜯을 수 있게 하신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매일매일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진정한 그분의 제자가 되자.

❖ 시작성가 (회의실)

❖ 시작기도(길잡이 14쪽)

❖ 새로오신 분 / 특별 참석자 소개 및 환영

❖ 팀모임 이름 및 현황 발표

남성 팀 1: 김광용(요한), 나중빈(프란치스코), 박종태(프란치스코사베리오), 최광섭(요한)

남성 팀 2/3: 강종훈(미카엘), 김영호(사도요한), 김홍락(바오로), 박주암(레오볼드), 정상준(미카엘), 함종식(마지아), 황종영(안젤로), 박승희(어거스틴)

남성 팀 3: 고응봉 (안드레아), 김삼수(안토니오), 박한진(펠릭스),
장상영(요한)

남성 팀 4: 강석용 (베드로), 강환중(도미니코), 심형근(크리스토퍼) ,
조번일(요셉), 최도찬(요한)

❖영적 지도: 지도 신부님

❖공지 사항

1. 팀모임 안내

- 4월에 발표하지 않은 팀은 5월 13일 울뜨레아 모임에서 발표
 - 남성 팀 1: 김규호 (안드레아), 백승흠(레오), 신상록(도미니코)
 - 여성 팀 1: 김경 (폴리나), 노정희(아가다), 오희옥(엘리사벳),
홍인숙(루시아)
 - 여성 팀 2: 강소영 (테레사), 김명림 (로사), 신혜영(율리안나),
장재현(요안나), 최상진(엘리사벳)
 - 여성 팀 3: 강인경 (세실리아), 김재훈(세실리아), 이애선(카타리나)
 - 여성 팀 4: 석은경(아가다), 이복준(세실리아), 이정란(안셀마), 황
안젤라
- 가장 “좋은” 이름의 팀에게 상품 (6월 울뜨레아 모임에서)
- 팀 리더와 팀원들의 나눔의 모임을 가질 예정: 각 팀의 잘 되는
점과 어려움 그리고 활성화에 대하여 토의

2. Walk-a-Thon이 3월 27일에 오클랜드에서 오신 3명을
포함하여 17명이 참가하였으며 묵주기도 486 단을 빨랑까로
봉헌하였습니다.

3. 꾸르실료 재 교육 일정이 확정 : 8월6일-7

4. Cursillo Regional Workshop - Region XI이 Fresno에서 4월
23 - 25일 개최되는데 임원들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5. 기도 빨랑까

○ 2010년도 3월 현황

	3 월	2010 누계
양팔기도	70	387
목주기도	945	3340
희생	40	120
화살기도	92	639
미사	45	166
성체조배	33	116
십자가의길	25	48
주모경	300	820
총계	1550	5636

- 사무국에 매월 \$50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물질 빨랑카를 부탁드립니다.

- ❖ 마침 기도 (길잡이 15쪽)
- ❖ 마침 성가
- ❖ 친교 시간

..... 그러나 나는 울지 않는다.
조금 더 훌륭하게 살기 위하여
옛날로 되돌아가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옳지 못하게 처리한 일들이나 잘못된 것 모두를
주님의 자비에 맡겨드리고,
내게 남은 미래를 바라본다.
나는 내게 남겨진 미래가
성화된 삶이고,
또한 남은 성화 시키는 삶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1945. 3 교황 요한 23세